



프시케 Story

Psyche

심리학(Psychology)의 어원인 프시케(psyche)는 그리스 로마신화에 나오는 아름다운 공주 이름으로 갖은 고난을 거치고 정화된 후에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영혼의 상징이다.





프시케 Story 창간 배경

심리학과, 귀를 기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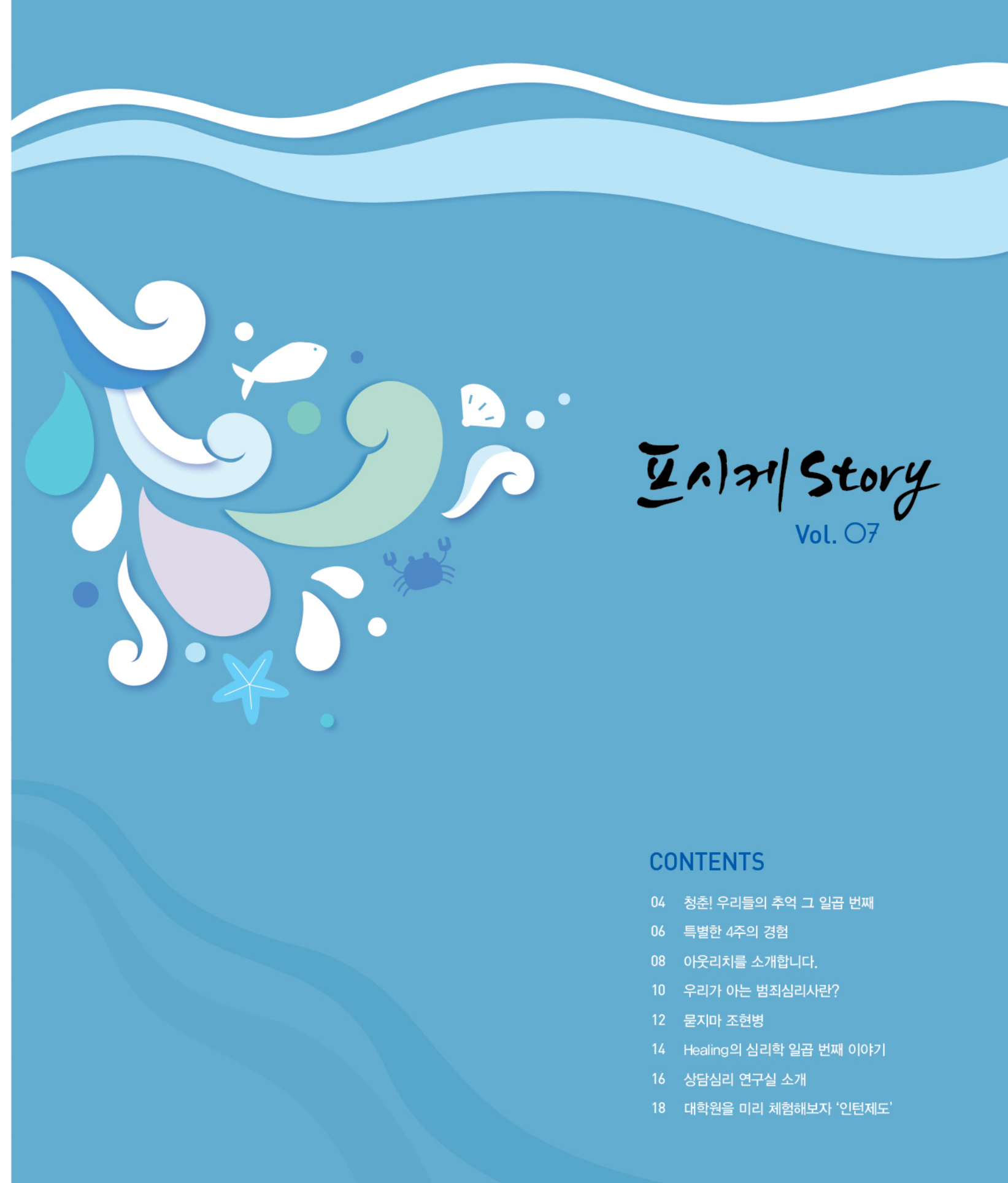
2012년 10월, 심리학과 역사상 처음으로 심리학과 학부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심리학과 발전 계획안 및 실천 아이디어를 공모하였다. 3~5명이 한 팀을 이루어 제출된 많은 아이디어들은 현 심리학과에 존재하는 문제들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학생들의 많은 생각들을 담고 있다.

발전, 소통(疏通)으로부터

많은 아이디어들 중 과내 소식지 (프시케 스토리) 발간을 제안한 '프시케 스토리'팀 (황제욱.07, 정지연.10, 황해지.10)이 대상을 받았다. 이 아이디어는 최근 대학생들의 개인주의적 분위기와 함께 심리학과 내 소통의 부재를 문제로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과내 소식지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 '프시케 스토리'는 동기들, 선후배 뿐 만 아니라 교수님, 대학원-학부생 간의 원활한 소통을 이끌어 낼 것이라 기대한다.

프시케 스토리?!

심리학(Psychology)의 어원인 프시케 (psyche)는 그리스 로마신화에 나오는 아름다운 공주의 이름으로, 갖은 고난을 거치고 정화된 후에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영혼의 상징을 의미한다. 프시케 스토리에는 학과 행사, 취업관련 정보, 수업 정보, 공지 사항은 물론 교수님과의 대화, 선배들과의 대화 등 다양한 Contents로 구성하여 학과 내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새로운 장을 마련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심리학과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프시케 Story

Vol. 07

CONTENTS

- 04 청춘! 우리들의 추억 그 일곱 번째
- 06 특별한 4주의 경험
- 08 이웃리치를 소개합니다.
- 10 우리가 아는 범죄심리사란?
- 12 묻지마 조현병
- 14 Healing의 심리학 일곱 번째 이야기
- 16 상담심리 연구실 소개
- 18 대학원을 미리 체험해보자 '인턴제도'



청춘, 우리들의 추억 그 일곱 번째

정은주 기자 wlsdk0805@naver.com

2월 15~16일 신입생 OT 및 수강신청

그동안 많은 새내기를 울렸던 '간다게임'을 없앤 첫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었습니다. 새내기 자료집을 바탕으로 꼼꼼한 설명, 조별 수강신청, 김비아 교수님과 첫 인사, 현재 부산대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우리 학과 친구들의 학교소개, 사회대 동아리 소개, 즐거운 뒤편이 까지 알찬 일정을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부회장이 된 소감이 어떠신가요?

부회장 최숙정

저는 참 많이 부족하지만 은주와 학생회 친구들 덕분에 1학기를 알차게 채운것 같아 기쁩니다. 부산대학교 심리학과에 좋은 활력을 주기 위해 늘 배우고 성장하는 부학생회장이 되겠습니다!

2월 26일 학위 수여식

2015학년도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학위수여식이 있었습니다. 15년도 회장인 11학번 박성진 선배님의 송사. 그리고 해도비 선배님들의 송사 등으로 많은 사람들의 축하 속에 선배님들의 졸업식이 진행되었습니다.



2월 27~28일 가족 MT

이번 가족엔티는 앞서 없었던 '간다 게임'의 취지를 살려서 조별로 학교를 탐방하는 시간을 가지고, 다양한 게임을 넣어서 진행해 보았습니다. 흥이 넘치고 열정적인 새내기 친구들과 학생회 친구들 그리고 참여해준 선배들 덕분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3월 3일 개강 총회

총대 부 총대 선출과 새내기 친구들이 가족엔티에서 만들었던 스넵 무비를 상영 하였습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결산 안을 공개하였습니다.

총대와 부총대가 된 느낌이 어떤가요?

총대 16학번 정영진

저를 믿고 총대로 뽑아주어서 친구들에게 감사합니다.

부총대 16학번 이소영

대학에 와서 뭐라도 하나 해보자는 생각으로 지원했는데 하다 보니 일을 주도적으로 해나가고 하는 과정에서 책임감 등 정말 배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ㅎㅎ

부총대 16학번 이승환

바쁘지만 여러 일을 해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3월 26~27일 신복 MT

대학원 선배님들과 재학생 분들의 많은 참여로 안주까지 풍족한 신복엔티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신복엔티에는 고맙게도 15학년도 회장과 부회장이었던 11학번 박성진 선배와 13학번 김예진 친구가 MC를 봐주었습니다. 대학원 소개, 성폭력 예방 교육, 교수님과 대학원 선배님들까지 함께한 게임, 즐거운 식사와 신입생 친구들의 장기자랑, 학생회의 축하무대까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행사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3월 29일 아웃리치 소모임 발족

뒤에 기사로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3월 31일 사회대 출범식

사회대 출범식에는 해도비의 축하공연, 총대 부 총대의 공연, 회장, 부회장의 축하공연, 그리고 여러 가지 작은 게임들로 진행되었습니다.

4월 30일 산행

이번 산행은 조금 특별했습니다. 심리학과와 친목도모를 위해 학부생과 대학원생이 한 조를 이루어서 산길을 올랐는데요! 산행의 길목마다 학생회 친구들이 게임을 준비해서 조별로 게임을 진행하며 산행을 진행해보았습니다.

학생회를 계속하고 있는데 학생회로서 느끼는 점이 있나요?

15학번 윤기희

선배들 후배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어서 좋고 심리학과 행사에 앞장 서서 일을 진행할 수 있어서 뿌듯합니다!



5월 12일~16일 스승의 날 행사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교수님들께 편지와 선물을 나눠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시간강사 교수님들도 모두 챙겨드려서 더 많은 교수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5월 17일 주말

복고 나이트를 컨셉으로 심리학과 '호박나이트' 주말을 운영하였습니다. 많은 교수님들과 대학원생 선배님들, 학부생 선배들의 많은 참여로 바쁘지만 즐거운 주말이 되었습니다.



5월 24일 외국인 유학생 모임 발족

이번 년도에 처음으로 심리학과에 외국인 유학생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많은 외국인 유학생 친구들과 한국인 친구들이 친해져서 더욱 더 재미있고 화목한 심리학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달 1번씩 모임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니 관심있는 분들은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과 행사에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늘 감사하고 빼약효과 학생회 정말 늘 감사합니다♡



특별한 4주의 경험



모두들 안녕하세요!

제가 어느덧 4학년이 되었습니다. 네, 졸업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 일생동안 두고두고 회자될 특별한 경험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바로 교생실습입니다! 어떠하였느냐고요? 좋았습니다. ^^ 참고로 저는 교직이수과정 중이기 때문에 교생실습을 갈 수 있었습니다. 교직이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2015학년도 프시케 5호를 찾아주세요~

장세영 기자 js00115@gmail.com

실습학교와 담당과목

저는 심리학과에서 교직이수를 했기 때문에, 2005년도에 신설된 '전문상담과목'의 '전문상담교사'로 실습을 나갔습니다. 실습을 했던 학교는 특성화고등학교인 '부산 에너지 과학 고등학교(부예고)'였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학교와 접촉을 해서 그 학교로 가는 방법이 있지만, 저는 대학교에서 배정해주는 대로 갔습니다. 그것이 참 신의 한수였습니다. ^^ 예상보다 훨씬 많은 상담실습 기회와 상담선생님이 직접 해주시는 수퍼 비전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예고는 학교특성상, 학생들의 성적보다는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상담은 모든 학생들에게 적극 권장되며, 많은 학생들이 상담을 받으러 상담실을 방문합니다. 상담선생님의 판단아래 저희와 상담을 해도 괜찮을 학생들에 한해서 상담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상담을 마친 후에는 상담선생님께 충분한 자문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그곳에서 교사뿐만 아니라 상담가로서도 한층 성장하였습니다.

실습일정 5

SUN	MON	TUE	WED	THU	FRI	SAT
step 01	탐색기 학교의 분위기와 학급의 역동을 파악하는 시기 (관찰도 하고, 학급 내 관계도를 그려보아도 좋아요.)					
step 02	과도기 실무를 경험해보고 담임선생님들께 집중적으로 배우는 시기					
step 03	적응기 학생들과도 많이 친해지고, 일정과 업무가 익숙해지는 시기					
step 04	정리기 동료 교생선생님들의 연구수업이 있는 시기, 교생실습을 마무리하기전에 해야 할 업무들을 모두 해치우는 시기, 선생님들과 아이들과의 작별인사 (헤어지기 싫었어요 T.T)					



동고동락했던 2016학년도 부산 에너지 과학 고등학교 교생 8인



동료교생선생님의 연구수업에 참관 중인 모습 (참 열심히죠?^^)

멋진 선생님들을 만나다.

교생실습을 통해 얻은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그곳에서 맺은 새로운 인연입니다. 저는 예비소집 날에 미처 학교를 가지 못하여 함께 할 교생선생님들을 조금 더 늦게 만나 보였습니다. 혹시 다음에 교생실습을 나가시는 분들은 이런 일 없길 바랍니다. 다행히도 예비소집 다음 날 주임선생님과 일대일 대면을 통해 주의사항들을 세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생각보다 훨씬 더 친절하셨기에 설레는 마음이 더욱 부풀었습니다. 좋은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그곳에서 보였던 선생님들 모두가 너무나 멋있었거든요. 선생님들께서는 교생들을 위해 열심히 특별연수를 준비해주십니다. 그곳에서 들었던 선생님들의 한 마디 한 마디에는 교직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한가득 담겨있었습니다. 이들 틈에 있다는 것이 영광일정도요. 선생님들의 모습은 우리 교생들에게 정말 귀감이 되었습니다.

물론 한 달 간의 실습을 함께 한 교생선생님들도 빠트릴 수 없죠. 처음 교생실은 모르는 사람들로 가득 차있어 눈치도 보고 어색하기만 했는데, 지금은 모두 헤어짐을 안타까워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각자의 고민에 함께 해답을 찾으려 노력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끊임없는 격려를 제공해주던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동료 교생 분들을 볼 생각에 매일 아침이 즐거웠습니다. 금쪽같은 인연들을 물어다주시는 부산 에너지 과학 고등학교와 부산대학교, 동아대학교께 감사드립니다!

TIPS!

- 의상은 무조건 정장!
- 첫날은 최대한 단정하게 하고 가세요. 교무실의 모든 선생님들께 인사드리고, 교장선생님을 뵙습니다.
- 학생들에게 먼저 다가가세요! 실습이 끝날 때쯤엔 더 친해지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 동료 교생 분들과 많이 친해지세요! 소중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 일지와 과제는 그때그때 하세요. 생각보다 양이 많아서 한꺼번에 하려면 바쁩니다.
- 지각이나 결석은 절대금지!





“아웃리치를 소개합니다!”

2016년 5월 24일 부산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ww.cando.or.kr)와 심리학과가 전국적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상호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심리학과 학생 24명이 부산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함께 '아웃리치'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예진 기자 yejin9409@naver.com



01 아웃리치란 무엇인가요?

'밖으로 나가서(OUT),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한다(REACH)'의 개념으로, 기존의 보호체계에서 이탈되거나 접근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보호체계와 관련하여 당면하는 심리적, 정서적, 생존적 장애의 완화와 사회보호체계로의 진입을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02 아웃리치의 활동

아웃리치의 활동은 크게 1388 홍보와 가출청소년 발굴 두 가지입니다.

1388은 24시간 쉬지 않고 운영되는 청소년을 위한 전화(통신료 무료)로, 다급한 위기 해결에서부터 근본적인 심리상담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보호자, 지도자,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바라는 사람들도 이 전화를 통해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정보제공, 전문가와의 상담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많은 청소년들이 교내 학교폭력 교육이나 아웃리치 거리상담 등을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 길거리에서 가출청소년들이 거리를 배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아웃리치는 청소년들이 살고 생활하는 장소, 특히 청소년 밀집지역에 아웃리치 전문가와 자원봉사자를 배치하여 가출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합니다. 가출을 하여 일시보호소에서 긴급서비스를 받을 경우 24시간 동안 보호자의 동의 없이 보호가 가능하며, 의식주 제공과 의료비, 교통비, 식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서비스의 이용여부를 강요해서는 안 되며, 청소년과 봉사자가 동등한 관계에서 청소년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하며 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 2016년 3월부터 3개월 동안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아웃리치가 활동을 해왔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서면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아웃리치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현장 속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정은주(13학번, 아웃리치 회장)

학부생들이 전공을 살릴 수 있는 활동을 해보았으면 좋겠다고 오랫동안 생각을 해왔지만 막상 쉽게 실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11학번 박성진선배가 부산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연락을 받아 아웃리치 활동을 해보는 것이 어떠한 제의를 해주었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아웃리치 소모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번 아웃리치는 11학번부터 16학번까지 꽤 다양한 학년이 모이게 되었고, 한 달에 한 번씩 서면에서 1388 청소년 상담전화를 홍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서면에서 홍보하다보면 느끼는 점은 화장을 하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고, 이 친구들이 성인인지 학생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은 교복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교복을 벗었을 때 보호를 받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의외로 가출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친구들이 가출을 결심하기 전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는데 받지 못했고, 이런 상담전화나 담임선생님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또한 나이가 많은 남자와 다니는 여자 친구들도 꽤 발견되어서 이런 친구들에게 우리가 하는 홍보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강소연(15학번)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제가 이 활동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것입니다. 저는 사실 심리학과, 상담 진로에 대한 단순한 스펙과 봉사시간을 목적으로 아웃리치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직접 설명을 들었을 때도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저는 직접 거리로 나가 학생들을 붙잡아 알려 주는 이 방법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었습니다. 아무도 들어 줄 것 같지 않았고,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대면적인 방법으로 직접 아이들을 만나며 그 아이들이 밝은 모습으로 이야기를 들어주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저는 제가 가지고 있던 편협한 시각에 대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도움을 주려다 오히려 제가 스스로의 내면을 다듬을 수 있는 기회로 도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었던 의미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이가현(16학번)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처음 보는 청소년들에게 1388을 홍보하는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많이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청소년들이 1388에 대해 모르고 있었고 이런 홍보 활동이 실제로 도움이 된다는 것을 느낀 후부터는 용기 내어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청소년들에게 말을 걸면 경계부터 했기 때문에 그 경계를 푸는 것이 힘들었지만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호응도 많이 해줘서 수월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1388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친구들에게 설명을 해 줄 때 정말 뿌듯했고 이런 홍보활동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기뻐했습니다!

여기까지 아웃리치에 대한 소개 글이었구요. 아웃리치에서 함께 위기 청소년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분들을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웃리치 부회장 김예진 (010-6649-1309) 으로 연락주세요!

우리가 아는 범죄 심리사란?

'범죄 심리사'라고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대부분 프로파일러를 많이 떠올릴 겁니다. 하지만 범죄 심리사와 프로파일러는 그 개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프로파일러는 직업의 명칭으로 범죄 심리분석관, 또는 범죄 심리분석 요원이라고도 부릅니다. 하지만, 범죄 심리사는 직업이 아닌 자격의 명칭으로써 예를 들어, 범죄 심리사 1급 자격, 범죄 심리사 전문가 자격과 같이 민간 비 등록자격을 말합니다. 다음은 한국 심리학회에서 범죄 심리전문가 및 범죄 심리사 자격과 역할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3조 (범죄 심리전문가 및 범죄 심리사의 구분)

범죄 심리전문가 및 범죄 심리사는 그 전문성에 따라서 범죄 심리전문가, 1급 범죄 심리사 및 2급 범죄 심리사로 구분한다.

제4조 (범죄 심리전문가 및 범죄 심리사의 역할)

범죄 심리전문가 및 범죄 심리사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범죄 심리전문가

범죄인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범죄예방 및 범죄자 교정과 관련된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개발·감독하고, 1급 및 2급 범죄 심리사를 훈련·양성하며, 범죄수사 및 조사과정에서의 범죄 심리학적 분석 등을 수행한다.

1급 범죄 심리사

범죄심리학에 관련된 전문지식을 갖추고, 범죄자에 대한 심리학적 평가, 범죄인 교정프로그램의 운영 등을 수행한다.

2급 범죄 심리사

범죄심리학과 관련된 기본적 지식을 갖추고, 현장실무에서 범죄수사, 위험성 분석, 교정 프로그램 운영 등의 보조 역할을 수행한다.

Q 소년범 조사 시 전문가 참여제

국내에서는 아직 범죄 심리사의 활동범위가 넓지 않고 소년범 조사 시 전문가 참여제의 심리 전문가로 참여하여 소년범들의 재 비행 위험성을 평가하는 것이 주된 업무입니다.

소지자, 범죄 심리사 수련생에게는 소년범 조사 시 전문가 참여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 집니다. 저는 현재 범죄 심리사 1급 수련생으로 1급 자격 증 취득을 위해 이번 해 1월 필기에 합격하고 수련자격을 얻어 경남지역 양산·밀양 경찰서에서 수련하고 있습니다.

소년범 조사 시 전문가 참여제란, 소년범이 발생하여 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범죄 심리전문가를 참여하게 하여 PAI-A검사 및 면담을 실시하고 소년범의 인성 및 재 비행 위험성 등을 분석하는 것이며, 향후 재비행의 위험성을 예측하여 위험성이 높지 않은 소년들에게는 벌을 주기보다 교육과 선도대책을 통해 교정·교화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범죄 심리 전문가, 범죄 심리사 1급·2급 자격증

수련을 위해서는 매년 초(2월) 각 지방청 단위로 경찰서에서 모집공고가 올라오면 지역 간사를 통해 신청서와 함께 희망하는 지역을 기재하여 지원을 하면 됩니다. 각 경찰서에 배치가 이루어지면 위촉식을 진행하고, 그 지역에 소년범이 발생하였을 때 스케줄을 조정하여 경찰서에 방문해 학생들과 면담하면 됩니다. 면담은 반드시 면대면 면담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면담과 함께 PAI-A 심리검사를 실시

하게 됩니다. 이렇게 얻어진 자료는 학생의 재 비행 위험성을 예측하는데 이용되고, 작성된 보고서는 법원에서 학생에게 내려질 처분에 대한 판결을 할 때 참고자료로 사용됩니다.

Q 보고서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경찰서에 방문하여 학생을 면담할 시, PAI-A 검사도 함께 실시하는데, 일반적으로 면담은 40분, 심리검사는 30분 정도 걸립니다.

이렇게 학생에 대한 정보를 얻은 뒤 심리검사 프로파일을 분석하여 학생의 인성에 대한 소견을 작성하고, 면담을 통해 얻어진 자료로 피면담자의 가족, 학교생활, 교우관계, 가출경험,



비행전력, 개인적 요인 등 비행촉발요인이 될 수 있는 환경에 대해 평가합니다. 이 자료들과 면담 시 학생의 면담태도를 종합하여 피면담자의 재 비행 위험성을 낮다, 약간 높다, 높다 중 하나로 예측합니다.

이와 더불어 학생의 재 비행을 낮추기 위한 선도 대책 등을 포함하여 종합소견을 쓰고, 이렇게 작성된 보고서는 바로 제출되는 것이 아니라 슈퍼바이저 선생님께 슈퍼비전을 받은 후 경찰서에 제출됩니다.

Q 자격증 취득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 필기

필기교육과정에 대한 안내문은 매년 1회, 12월 초 한국 심리학회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선착순에 의해 교육대상자를 뽑습니다. 교육은 심리학 전공, 복수전공 및 범죄심리학 전공자 4학년 이상인 자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범죄 심리사 1급 교육은 총 2주 과정으로 서울에서 진행됩니다. 교육은 보통 숙명여대 (2016년은 중앙대)에서 점심시간 1시간을 포함하여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진행됩니다. 교과목에는 범죄심리학, 법심리학, 범죄학, 법정에서의 전문 증거로서 심리학의 활용, 범죄와 이상행동, 헌법·형법, 형사정책, 비행청소년 면담 법, 수사 면담과 아동진술, 교정학, 교정시설의 처우/위협성 평가, 판결전조사, 보호관찰업무 및 사회 내 처우 등이 있습니다.

2주간 교육을 마치고 마지막 날에는 평가시험이 있으며, 커트라인 60점을 넘는다면 당일 날 바로 수료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련과정

범죄 심리사 1급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학위 소지자의 경우 600시간 현장실습(경찰서 면담, 예방활동 프로그램 참여 등)과 300시간 수련을 받아야 합니다. 현장실습은 1일 기관 방문 시 8시간 인정이 되며, 수련은 보고서 1개를 작성하였을 경우 4시간, 하루 최대 4건(16시간)까지 인정됩니다.

보통 수련은 1~3년이 걸립니다. 이와 함께 학회(사례 회 인정 안 됨)에 20시간 이상 참석하면 범죄 심리사 1급 자격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부산에는 경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동하는 범죄 심리사가 많습니다. 경찰서에서는 기존에 활동하던 분들에게 먼저 연락하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몰리는 지역에서 활동하게 되면 수련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경남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범죄 심리사분들이 몇 없어 한 달에 두 번 정도 방문하여 평균 4-8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Q 수련과정에서 느낀 점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사람이 그에 상응한 대가를 치르기를 원하시나요? 아마 이 질문에 모두들 그렇다고 대답하실 겁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범죄의 희생양인 피해자 때문이라도 가해자는 자신의 잘못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마인드는 수련을 받으면서 차츰 변화되어져 갔습니다. 첫 면담 때, 저는 정의감에 가득 차 있었고 '꼼꼼하게 체크해서 자신의 죄값을 치르게 해야지!'라고 생각하며, 피면담자로 온 학생에 대해 다소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직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 밖에 되지 않은 어린 아이들이 상상이상으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것을 보며 놀라움을 느꼈고, 한편으로는 그 학생들이 한심해 보이기가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이러한 태도는 한 번, 두 번 여러 학생들을 만나면서 바뀌어 갔습니다.

면담에 오는 학생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활기차고 학교에서 조금 논다는 소위 일진이라 불리는 친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 80%는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자랐거나 가족관계에 문제가 있어 부모님으로부터 관심이나 사랑을 충분히 받을 수 없는 환경에 있었고, 이러한 환경이 심리적인 문제를 발생시키거나 비행에 노출되도록 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음이 심리검사 등을 통해 여러 번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물론 환경의 영향을 받았으니 이 아이들의 잘못을 봐주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쩌면 '여기 있는 친구들도 어른들의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범죄 심리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심리학과에 범죄 심리사에 대해 관심 있어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 기사로 다루어보게 되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메일로 연락주시면 더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지마 조현병 ?!

김하경 기자 sky_9261@naver.com

지난 5월 17일 새벽 일어난 서울 '강남역 문지마 살인 사건'과 25일 오후 부산 동래구에서 벌어진 대낮의 폭행사건 모두 피의자의 범행 동기가 조현병(調竊病)으로 인한 피해망상인 것으로 경찰 조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특히 강남역 사건의 피의자 김씨는 지난 2003년부터 피해망상 증상을 겪었고, 이는 2년 전부터 여성에 대한 피해망상으로 악화됐다고 합니다.

김씨는 2008년부터 올해 1월까지 6번에 걸쳐 19개월 간 정신병원 입원 이력이 있으며 지난 3월부터는 약 복용을 중단해 망상 증세가 악화됐다고 합니다. 정신건강의학 전문의들은 "김씨가 꾸준히 치료를 받았더라도 이런 비극적인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조현병은 어떤 정신장애일까요?
왜 발생하고,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하는 걸까요?



우선, 어원부터 살펴봅시다.

조현(調竊)이란 현악기의 음률을 고른다는 뜻으로, 이 장애를 진단받은 사람은 마치 현악기가 정상적으로 조율되지 못했을 때처럼 혼란스러운 정신 상태를 보인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정신분열증이라고 하던 것을 2011년 개명하였습니다. 정신분열병이라는 단어 자체가 풍기는 부정적인 인상과 편견이 개명의 이유라고 합니다. 조현병 환자는 대개 망상과 환청 등으로 인한 이상 증세를 보이는데, 이들의 행동이 때때로 타인에 대한 공격과 범죄로 이어져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현병의 핵심적 진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A 다음 증상 중 둘 이상이 1개월 동안의 상당 부분의 시간에 존재하고, 이들 중 최소한 하나는 (1) 내지 (2) 혹은 (3) 이어야 한다.

- 01 망상
- 02 환각
- 03 와해된 언어
- 04 극도로 와해된 또는 긴장성 행동
- 05 음성 증상

B 기능 수준의 현저한 저하

C 최소 6개월 이상 증상의 지속
-진단기준 A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최소 1개월 포함

정신병적 장애를 정의하는 핵심적 특징으로 망상과 환각, 그리고 와해된 언어가 있습니다.

간략히 망상이란 모순된 증거를 고려하고도 쉽게 변경되지 않는 고정된 믿음으로, 다양한 주제를 가지는데 어떤 사람이나 조직에 의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피해망상, 어떤 행동이나 말이 자신을 겨냥한 것이라는 관계망상, 특별한 능력이나 명성을 갖고 있다고 믿는 과대망상 등이 있습니다.

환각은 외부의 자극 없이 일어나는 유사 지각 경험을 말합니다. 정상 지각과 똑같이 생생하고 분명하며, 수의적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조현병 환자에게는 환청이 가장 흔하게 나타납니다.

와해된 사고는 언어에서 유추됩니다. 하나의 대화 주제에서 다른 주제로 옮겨가는 경우, 질문에 대한 대답이 관련이 없거나 모호하게 관련되는 경우가 와해된 언어를 구사하는 경우입니다. 드물게 거의 이해할 수 없는 정도로 와해된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조현병의 유병률은 문화적, 인종적 차이가 있지만, 대략 0.3~0.7%정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체 인구의 약 1%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개 20대에 정신병적인 첫 삽화가 발병한다고 합니다. 조현병이 왜 생기는지 원인은 아직 전부 다 밝혀지지는 않았습디만,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물질의 시스템의 문제가 그 원인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특히 정신병적 증상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부정적이기는 하지만, 현재 보고된 바에 의하면 환자 중 1/5 정도만 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조현병은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치료는 도파민의 균형을 맞추는 약을 쓰며, 완치가 가능한 병은 아니기 때문에 평생 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증상이 좋아졌다고 약을 끊으면 쉽게 재발하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환자가 치료를 중단하고, 환자 중 절반 이상이 2년 이내에, 치료 5년 이후에는 82%가 재발한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관찰하는 기능이 떨어져 쉽게 약을 먹지 않게 되고, 그러면 약에 대한 저항성이 생겨 더 강한 약을 쓰게 됩니다. 재발과 치료를 반복하면 뇌 손상이 심해져서 언어, 기억, 추론 같은 인지능력과, 사회적 기능이 떨어져서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들은 꾸준한 치료에 대한 감독, 여러 기능적 손상으로 인한 생활에의 적응문제에서 주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상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발생한 여러 사건들로 그들을 관리나 치료가 아니라 공포와 불안의 대상으로 보는 시선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보다 객관적인 시선에서 조현병 환자들을 살피고, 적절한 심리사회적 개입을 적용한다면 누구도 불안에 떨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지 않을까요?

참고
 강경훈, 『조현병, 1년에 주사 4회 맞으면 정상 생활 가능』(2015)
www.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31/2016053102133.html
 APA,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DSM)-5』(학지사, 2015)

Healing의 심리학 일곱 번째 이야기

영화를 소개합니다

대니쉬 걸 (The Danish Girl, 2015)

드라마/ 2015.02.17. 개봉/ 119분/ 미국, 영국/ 청소년 관람불가/ 감독_톰 후퍼

안녕하세요. 이번에 제가 소개해 드릴 영화는, 세계 최초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남성에서 여성이 된 덴마크 화가의 특별한 이야기를 그린 '대니쉬 걸'입니다. 소재가 신선한가요? 독특한 소재 뿐 아니라, 아름다운 영상미와 높은 완성도로 아카데미, 골든 글로브, 베니스 국제영화제 등 전세계 유수의 영화제를 휩쓴 걸로 유명하죠. 이 영화, 은근히 잊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1926년, 코펜하겐과 파리 등 유럽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영화는, 보고 있으면 마치 한편의 예술작품을 감상하고 있는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섬세하게 흐르는 주인공의 이야기는 보는 이로 하여금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데, 그 아름다운 내용을 심리학도답게, 심리학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약간의 스포일러는 피할 수 없겠지만, 세세한 감정선이 주를 이루는 영화에서 대강의 큰 줄기만 다룰 것이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아이나, 그리고 릴리

촉망받는 풍경화가 '아이나 베게너', 그는 사랑하는 아내 '게르다'와 미술가 부부로서 코펜하겐에서의 소소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실 그에게는 남모름 비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성용 의복에 매력을 느끼고 자신에게 덧대어 봄으로써 묘한 희열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의 이런 점을 알고 이해해 주는 것은 오직 그의 아내 게르다 밖에 없습니다. 아이나는 언제나 고향을 배경으로 한 풍경화만을 그리는데, 그것은 사실 그 안에 어린 시절부터 억눌려 왔던 자신의 여성으로서의 욕구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수줍음 많은 아이나는 게르다에게 장난삼아 여장을 제의 받고 파티에 참석하는데, 그때 그는 처음으로 자기 속에 있던 여성, '릴리'로서 세상에 나오게 되고, 혼란스러움 가운데 점차 릴리로서의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더 이상 아이나로서 세상에 존재할 수 없게 되고 맙니다.



이러한 아이나의 모습을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적 관점에서 이야기 해봅시다. 프로이트는 아이나가 겪는 성 정체성 혼란을 일종의 심리적 장애로 보았습니다. 그는 심리 성적 발달이론에 따라 남근기 (3-6세 경)의 아동에게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일어나는데, 이 과정에서 아동이 자신의 동성 부모와 스스로를 동일시하며, 그 모습을 닮아간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동이 동성 부모가 아닌 이성 부모를 과도하게 동일시하게 되면, 그것이 심리적 고착이 되어 이후 성 정체감 장애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나가 항상 똑같은 풍경을 그리는 행위를 정신분석적으로 바라보면, 여성이 되고 싶다는,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없는 욕구를 방어기제의 한 종류인 '승화'를 통해 그림을 그리는 방식으로 해소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프로이트식 해석에 대해 고개가 끄덕여지시나요?

게르다, 송고한 사랑

게르다는 아이나의 변화를 쉽게 받아들일 수 없지만, 한편에선 릴리가 자신에게 좋은 영감의 소재임을 깨닫고 릴리로서 아이나를 부추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아이나가 릴리가 되어버린다면 사랑하는 남편을 잃어버리게 되므로 그녀는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성 정체성으로 자신보다 더욱 괴로워하는 아이나를 보며, 게르다는 릴리를 온전히 받아들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녀는 남편을 잃은 상실감과 여자로서의 외로움에 시달리지만, 릴리가 된 아이나의 곁을 지키며 그의 행복을 돕습니다. 결국에는 릴리가 수술을 통해 육체의 구속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으로 거듭나는 순간까지도 그의 곁에서 그를 위해 헌신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아이나(릴리)를 향한 게르다의 모습에서 칼 로저스로 대표되는 인본주의 심리학의 주요 개념인 '무조건적 수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 수용이란 누군가의 감정, 사고, 행동 등에 대하여 사회나 환경이 요구하는 외적 기준을 통해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는 태도를 뜻합니다. 쉽게 말해 대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데, 로저스는 개인이 가족을 포함한 사회에 의해 부여된 가치들로부터, 진정한 자기를 억압하며 살아간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무조건적 수용을 통해 인간을 다시 독립적, 실존적 존재로서 기능하게 하고, 나아가 자기실현을 이룰 수 있게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르다는 아이나에 대한 사랑으로 그가 사회의 시선에서 벗어나 진실한 자신의 모습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의 곁에서 헌신하며 무조건적 수용의 태도로 그의 선택을 지지해 줍니다. 아이나가 사라져가는 것이 누구보다 가슴아플 그녀임에도 말입니다. 이와 같이 인본주의 심리학은 인간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심리학의 영역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심리학은 생각한 것 보다 우리와 가까이 있습니다. 수업시간에 배운 지식들을 영화나, 티비를 보면서 실생활에 적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상담심리 연구실

오선우 기자 totojina@pusan.ac.kr



★안녕하세요. 이번호에서는 사회대 5층에 위치한 심리학과 6개 실험실 중 상담심리 연구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담심리학(counseling psychology)은?

일반인 내담자[clients]와 정신질환이 지나치게 심각하지 않은 환자[patients]를 대상으로 그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부적응[예: 우울, 불안, 대인관계 문제, 학업문제, 중독, 잘못된 행동습관, 성격 문제 등]을 전문적인 심리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도와줌으로써, 내담자 스스로가 주요호소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자아실현과 자기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응용심리학의 한 분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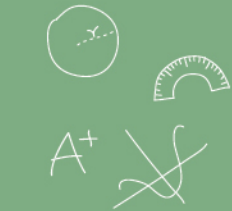
상담에서는 내담자가 지닌 장점과 자원을 강화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이해 및 통찰을 얻어 내담자 스스로가 문제해결 상황의 주체가 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A = \pi r^2$$
$$C = 2\pi r$$

상담심리 연구실 소개

저희 상담심리 연구실은 석사와 박사 과정을 모두 합쳐 30명 내외의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상담 실무와 연구 능력을 함께 함양하기 위해서 선후배 간에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끌어주는 우애 속에서 개인의 자원과 가치를 발견하고 개발하는데 남다른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석사과정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상담심리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대부분 상담 현장에서 일하게 됩니다. 박사과정생들은 일반인을 위한 학내 상담기관인 효원심리센터에서 파트타임 상담자로 일하며 자신의 경력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상담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날로 늘어나지만 이를 충족시켜주는 질 높은 교육은 아직 부족함이 많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수요와 기대에 부응하는 책임 있는 인재들을 발굴하고 키워나가기 위해서 늘 노력하고 있으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후손들에게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 물려주는데 일익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서수균 교수님



졸업 후 진로는 어떻게 되나요? 01

졸업 후 진로는 학교장면에서 강의 및 연구활동을 하거나 상담소나, 상담 관련 연구기관, 중독센터 등의 기관에서 상담 및 심리치료활동을 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최근에는 그 활동영역이 군대나 기업체와 같은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취득 가능한 자격증은 어떤 것이 있나요? 02

상담심리학 관련 자격증으로는 한국상담심리학회가 인증하는 상담심리사 1급(전문가), 2급과 한국상담학회의 전문상담사 1급, 2급이 대표적입니다.

상담실습은 어떻게 하나요? 03

상담심리 연구실에서는 석사 때부터 지도교수님과 석사 선배와 박사선생님들의 조력 하에 상담실습을 시작합니다. 내담자는 부산대학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통해 모집합니다. 상담사례를 맡게 되면 지도교수님을 포함한 전문가 선생님들께 슈퍼비전을 받습니다. 지도교수님께서 학기마다 정기적으로 마중물 심리치료 및 심리검사 연구회를 개최하여 지속적으로 다양한 사례를 접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하십니다. 지도교수님께서 직·간접적으로 많은 사례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덕분에 석사 때부터 상담이론 및 실전을 풍부하게 경험 할 수 있습니다.

상담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04

부산대학교 자유게시판에 종종 [일반대학원 심리학과] 개인상담 내담자 모집 이라는 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대학생활이나 전반적 생활에서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생 및 대학원생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게시글에 기재된 메일주소로 간단한 본인 소개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개인상담 접수신청서 양식을 보내드립니다. 접수신청서를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상담자가 배정되며, 상담자와 일정을 조율하여 심리학과 상담실실에서 상담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상담심리연구실과 여러분들이 궁금해할만한 점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 연구실로 전화주시거나 상담심리연구실 홈페이지 게시판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Tel. 051-510-3565 Homepage. <http://counselinglab.pusan.ac.kr>





대학원을 미리 체험해보자 인턴제도



안녕하세요~ 김해진입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일부 실험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턴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해요.

부산대학교 심리학과에서는 **공학실험실, 인지신경실험실, 인지실험실, 발달실험실**에서 인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턴이라 하면, 학부생들이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던 실험실에서 교수님과 대학원 선배들의 지도를 받으며 함께 실험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제들을 탐구해 보는 것입니다. 미리 대학원 생활을 체험해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현재 인턴 생활을 하고 있는 13학번 권소영양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있는데 진로에 대한 탐색도 해보는 기회를 갖고 싶다고 조심스레 제 생각을 전달했었습니다.

Q 그 동안 인턴생활을 하면서 참가했던 활동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주로 하는 활동은 랩미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가끔은 실험실에서 참가하는 심리학회도 함께 가기도 하고, 제가 관심 있게 읽었던 논문들을 정리해서 발표를 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한 프로젝트에 보조 연구원으로 참여해서 대학원 선배와 다른 인턴 언니와 함께 스터디도 하고 실험도 구상해 보고 있습니다.

Q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심리학과 13학번 권소영이라고 합니다.

Q 지금 어느 실험실에서 인턴을 하고 계시죠?

지금 이동훈 교수님께서 지도하시는 인지신경실험실에서 인턴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1년 정도 되었네요!

Q 어떻게 인턴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제가 3학년 때, 이동훈 교수님께 메일을 보냈어요. 왜 이 실험실에서 인턴을 하고 싶은지 어떤 부분에 흥미가 있는지를 설명 드렸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동훈 교수님께서 강의 하신 생물심리학, 지각심리학, 언어심리학을 들었는데요. 이 수업 들을 때 마다 교수님께서 항상 궁금하게 뭔지 적어보라고 하셨어요. 궁금한 걸 적다 보니, 공통적으로 제가 '추상적 개념이 어떻게 습득 되는 걸까?'라는 질문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개념을 습득한다는 것이 결국엔 언어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교수님께 이런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 대학원 진학에 관심이

Q 인턴 생활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겠지만, 그 중 하나를 뽑는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원래 저는 생각을 말로 하는 것을 힘들어 했었고 발표 불안도 컸습니다. 하지만 계속 랩미팅에 주기적으로 참여하면서, 선배들의 발표하는 모습을 보면서 발표하는 법에 대해서도 배우고, 교수님이 피드백 해 주시는 것을 들으며 제 스스로도 점검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스스로 생각을 정리하는 방법도 조금씩 배우게 되고, 발표나 토론의 기회가 많아지다 보니 점차 말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인턴을 하지 않았다면 몰랐던 것들, 예로 대학원 생활이나 공부를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어요.

인터뷰에 참가해 준 권소영양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인턴이라는 제도를 몰랐던 분들에게는 좋은 정보가 인턴을 하고 싶었던 분들에게는 도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모두들 대학생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알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김해진 기자 o0owing0@hanmail.net.

2016 2학기 심리학과 학사 및 행사일정



본 행사 이외에도 추가 되는 학과 행사나 일정들은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2016학생회 '빼약효과'가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여쁘게 봐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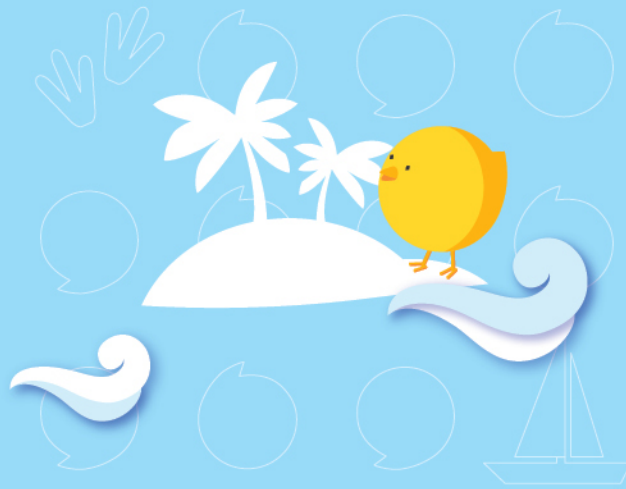
- 6월 농활
- 9월 개강총회 가을산행, 문창제
- 10월 안심박심 대학원생 연구 발표회
- 11월 심리학과 학술제
- 12월 종강총회

프시케 스토리 기자단



그동안 프시케스토리는 창간호를 시작하여 이번 7호까지 매 학기마다 하나씩 출간되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열심히 만든 프시케 스토리는 이제 심리학과 페이스북 그룹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읽어주시고 좋은 아이디어나 더 알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포시케 Story

발행일 2016. 6. 13
발행처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주 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장전동 부산대학교 사회관 416호)
Tel 051. 510. 1561
Fax 051. 581. 1457
홈페이지 psy.pusan.ac.kr
기획·편집 부산대학교 심리학과